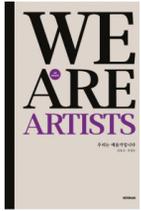


지역 기반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예술에 대한 생각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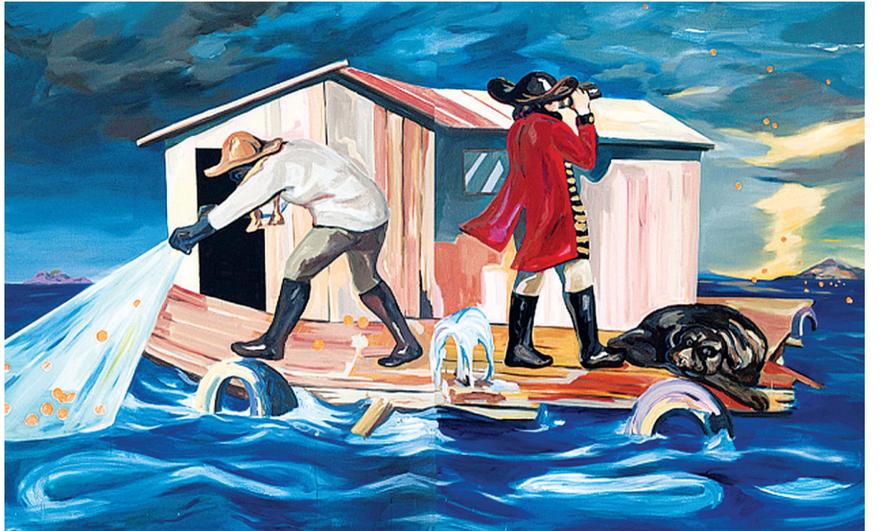
책을 펴낸 이는 '우리는 농부입니다'라는 인터뷰 에세이집을 펴낸 김유나 작가와 미술수업 가이드북 '다르게 보는 눈, 예술가 되어'의 공저자인 서정은 작가다. 김 작가는 "인간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학습을 생애맥락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견



모든 이야기가 발레리나에게서 이어지지만 결국 '동시대를 사는 모두의 이야기'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대학시절 수업에서 전환점을 맞은 이인성(사진) 작가 이야기도 있다. 인물을 빨간색으로 칠했는데 교수님께서 야수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에피소드도. 그날 이 작가는 다른 유형의 그림과 회화적 시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드로잉이 실수였는데 미술에 관해 많은 가능성을 알게 해준 계기였다고 기억한다.

사회에 대한 메시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이인성 작가는 "작품에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교차하는 지점"을 구현한다고 했다. 그의 작품 '뗏목 위의 두 사람'은 선장과 어부를 상징한다. 현실과 이



이인성 작 '뗏목 위의 두 사람'

상의 대비를 상징하는 것으로, 작품 속 주황색 점은 추상적이면서도 다양한 의미를 함의한다.

대산대학문학상 수상작가인 동화작가 전여울에 대한 인터뷰도 있다. 전 작가는 동화는 어른의 시선으로 어린이를 재단하는 장르가 아니라고 본다. 그는 대구 출신이지만 대학에 입학하며 광주로 왔다. 성인 이후로는 줄곧 빛고을에서 살았고 지금은 직장 일로 고향에 내려와 있다. 그에게 광주는 "생각

을 확장해준 도시"다.

이밖에 책에는 연극인이자 독립기획자 임인자를 비롯해 사회운동가인 판화가 김기미, 시민예술가 박세미, 아쟁연주자이자 음악감독 유세운, 스트릿댄스 팀 빛고을댄서스 등 다양한 광주 예술가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minimum·2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WE ARE ARTISTS

김유나·서정은 지음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이를 일컬어 예술가라 한다. 사전적 의미는 단순명료하다. 그러나 예술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본질적으로 예술은 자유분방하며 독립적이다. 물론 오늘날에는 다양한 형태의 콜라보를 매개로 예술적 행위나 작품 창작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빛고을에는 다양한 영역의 예술가들이 있다. 광주 예향(藝鄕)인 것은 예맥(藝脈)이 면면히 흐르기도 하지만 예술가들이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치기 때문일 것이다. 오랫동안 대물림해온 전통 장르부터 첨단 기술을 토대로 한 미디어아트에 이르기까지 다채롭다.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예술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지향하는 예술, 현실적인 고민, 지역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비전 등을 담은 책이 발간됐다. 'WE ARE ARTISTS' (우리는 예술가입니다)는 18명의 예술가를 통해 지역문화의 이모저모를 담아낸 대화집이다.

지하는 연구자이며, 서 작가는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들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다.

이번 책은 다양한 직업군의 인물들 이야기를 담아내는 'WE, PEOPLE' 프로젝트 두 번째로 기획됐다.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이들을 만나 그들의 '진심'을 전달하고 함께 공유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왜 광주였을까. 김 작가는 발레리나이자 안무가인 노윤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광주만의 특성을 찾았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립발레단은 광주 유일하다. 다른 시도에도 무용단이 있지만 대부분 한국무용단이며, 대구는 현대무용단이 있다. 대부분 시민들은 광주 시립발레단이 전국 유일무이하다는 것을 잘 모르는 상황이다.

'47세 현역 발레리나'라는 타이틀에 대해 노 발레리나는 이렇게 답했다.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너무 일찍 발레를 그만두는 동료, 후배들을 많이 보았기에 오래도록 춤을 추고 싶어 하는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싶기도 해요."

47세에도 무대에 오르는 노 발레리나에 대해 저자는 '경력만큼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본다.

철학의 쓸모

로랑스 드빌레르 지음, 박효은 옮김



사람들은 날로 살기가 힘들다고 한다. 어떤 이는 인간관계는 얽히기만 하고 밧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인생은 고해라는 말이 있듯이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삶에서 마주해야 하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모든 학문 가운데 철학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를 묻는 학문이다. 그렇다면 철학은 고통에 아우성치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프랑스 최고 철학자 교수로 꼽히는 로랑스 드빌레르는 "사는 동안 누구에게나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철학을 아는 삶이 우리들 각자를 이롭게 한다고 강조한다. 그가 펴낸 '철학의 쓸모'는 철학이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이야기한다.

발간 후 40주 연속 베스트셀러, 2023년 최고의 책으로 꼽힐 만큼 인기를 끌었다.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명확하다. '인생의 고통에 대한 해답은 철학에 있다'는 것이다. 책 제목처럼 철학은 쓸모가 있으며, 무엇보다 사는 동안 자신만의 철학이 있으면 힘들어도 살 수 있다고 본다.

저자가 말하는 철학 사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삶의 근본적 고통에 대해 폴 리코르는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통에 대해 미화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하소연하라"고 조언한다. 몽테뉴는 머릿속에 맴도는 후회와 자책은 삶에 있어 어떤 유익도 없으니 "순간에 몰두하여 온전해지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철학은 결코 백면생생의 사치의 전유물도 아니며 조금의 유익도 없는 행복을 잔탄하지도 않는다. 역설적으로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사유하지 않는다.

<FIKA·1만8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구 끝 날의 요리사

요나스 요나손 지음, 임호경 옮김



그가 쓴 소설 제목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독특하다. 제목 뿐만 아니라 소재도 기발하다. 133개국에서 1100만 부 판매를 기록한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저자 요나스 요나손이 이야기다.

이 시대 최고의 코미디 작가로 불리는 요나스 요나손이 여섯 번째 장편소설 '지구 끝 날의 요리사'를 들고 돌아왔다. 현실의 문제들을 가지않고 풍자하면서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인물들을 통해 커다란 웃음을 선사하는 요나손 특유의 유머가 담겨 있다.

유년 시절부터 '멍청이'라고 불려왔던 요한은 유일한 가족인 형이 로마로 떠나며 남긴 캠핑카를 타고 캠핑장으로 향한다. 운전이 서툰 요한은 캠핑장에 있던 예언가 페트라와 캐러밴을 쳐서 비탈길로 굴러 떨어지게 만든다. 페트라 자신이 예언한 종말이 12일 남은 시점, 더 이상 사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던 순간이었다.

요한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끝내주는 요리 실력이었다. 요한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던 둘은 즉흥적인 여행을 떠나기로 한다. 궁지에 몰린 요한과 페트라를 도와준 양네스까지 합류하고 세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오바마와 반기문을 만나고, 아프리카 최악의 부패 국가인 콘도르스에서는 철창 신세를 지게 된다.

작품 속 또 다른 매력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와 일어날 법한 이야기,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가 뒤섞이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전개된다는 점이다.

요나손의 작품을 꾸준히 번역해 온 번역가 임호경은 '힘들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물들 사이에서 어쩌면 결국 가장 행복한 사람은 멍청이 요한'이라고 이야기한다.

<열린책들·1만8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당신의 음악 취향은

수전 로저스·오기 오가스 지음, 장호연 옮김



음악에 대해서 앨범을 익성하거나 프로듀싱하는 생산 능력도 중요하지만, '듣는 역량' 보다 의미있는 것은 없다. 진정성, 사실성, 멜로디, 가사, 리듬, 음색, 참신성 등은 나만의 음악취향을 분석하는 키워드다.

음악 취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차원들을 이야기하는 책이 나왔다. 버클리음대에서 심리음악학 및 음반 프로듀싱 교수로 일하는 수전 로저스와 보스턴대 신경과학 박사인 오기 오가스가 최근 펴낸 '당신의 음악 취향은'은 사람마다 다른 음악 취향의 비밀을 파헤치는 책이다.

누군가는 재즈를, 다른 어떤 이는 클래식에 매료되곤 한다. 어떤 노래는 히트작이 되고 어떤 노래는 실패해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 단순히 '잘 만든 곡이 살아남는다'는 원리가 통하지 않기에, 노래들의 흥망성쇠는 한 가지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오늘날 이런 음악을 꾸준히 접한 우리들은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듣든 데스 메탈을 듣든 여덟 마디나 네 마디, 열여섯 마디 뒤에 새로운 뭔가를 기대한다. 다섯, 일곱, 열세 마디 뒤에 바뀌는 음악보다 짝수 마디가 바탕이 되는 음악이 더 익숙하게 들린다."

책은 청자들이 곡 초입에서 들리는 멜로디라인 뒤에 이어질 어떤 음향적 변주, 효과를 기대하면서 특히 짝수 마디에서의 멜로디를 익숙하게 여긴다고 말한다. 이 같은 인식론적 과정을 심리음악학 등을 전공한 저자들인 만큼 멜로디와 리듬, 음색과 악곡 전개 등 층위에서 심리·과학적 이론을 통해 알려준다.

저자는 레즈너의 'Hurt'와 캐시의 'Hurt'를 비교하거나 ASMR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 우리 뇌가 소리를 처리하는 과정 등 흥미로운 음악세계를 소개한다.

<에포크·2만2000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쿠폰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쿠폰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 | | | | |
|------------------------|------------------------|--------------------------|------------------------------|
| 용 산 지 점 062)526-0222~3 | 유 동 지 점 062)512-1984~5 | 유 덕 지 점 062)373-3235~6 |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
| 치 평 지 점 062)381-8212~3 | 동 립 지 점 062)513-8521~3 | 동 운 지 점 062)528-2640~2 |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
| 쌍 촌 지 점 062)381-6551~2 | 운 암 지 점 062)527-3295~6 | 배 들 지 점 062)381-1971~2 |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
| 화 정 지 점 062)372-0421~3 | 운 천 지 점 062)371-2772~3 |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
| | | |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
| | | | 로컬푸드(시정) 062)364-8400 |
| | | |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
| | | | 애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